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s for retirement of the first and Second Baby-Boom generations)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최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혜경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2011, 통계청), 이러한 인구집단의 대규모 은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은퇴가 예측 가능한 인간 발달 단계 과정이 아닌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경우 고령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퇴는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전환기적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은퇴는 인간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다(최신덕, 김종숙, 1983; 장은정, 2005재인용).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은퇴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사건으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연구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value)는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최종상태를 다른 행동이나 최종상태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신념이다.(Rokeach,1973) 가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내재화된 신념이기 때문에(Meglino & Ravlin,1998) 개인의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 (Rokeach,1973; Williams,1979). 우리 나라는 그동안 비약적인 사회발전을 이루었는데 단순한 수명의 증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관련이 높다. 은퇴에 대한 기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태도는 행동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Fishbein & Ajzen,197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가치-태도-행동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서유영,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노후삶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성공적인 노화 인식과 은퇴라는 삶의 전환기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은퇴 기대가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세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2013년 현재 14.3%(통계청, 2013)를 차지하고 있는 1955년에서 1963년에 걸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이다. 이들 기존의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55년~1974년에 출생한 세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가 급증한 또다른 시기인 1968년에서 1974년에 걸쳐 출생한 세대는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1%를 차지하여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는 인구집단으로 이들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 세대의 의미를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주요 경험들을 공유하고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및 행동 양식을 가지는 코호트로 파악(허은정·김우성, 2007)했을 때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들의 비교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미 한 해 평균 85만 명이 출생한 경제활동의 중추적 세대로 기존의 베이비붐세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여 명명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1차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은퇴기대, 은퇴행동 간의 관계 및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 세대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를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박재홍(1995)의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행위양식, 생활양식을 갖는 코호트라는 세대 개념에 근거하여 앞의 연구자들의 의견처럼 합계출산율 3.0이상의 기준으로 1955~1974년의 20년간을 크게 묶어 베이비붐세대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1955년~1974년에 출생한 세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인구가 급증한 두 개의 봉우리를 (<그림1>) 각각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미 한 해 평균 85만 명이 출생한 경제활동의 중추적 세대로 기존의 베이비붐세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여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명명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1968~1974년 출생자들을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를 2차 베이비붐 세대와 개념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차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표1〉 1, 2차 베이비부머 규모¹⁾

(단위: %, 명)

구분	출생연도	전체인구대비비율	명
1차 베이비부머	1955-1963년	14.27	7,136,524
2차 베이비부머	1968-1974년	12.12	6,061,275

2. 은퇴준비에 관한 선행 연구

(1) 은퇴준비행동의 개념

은퇴는 은퇴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에 해당되며(고화정, 2013), ‘현재 직업이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수준의 근로경력 후 자신이 하던 일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그 직업에서 물러난 경우’(김연진, 2012)로 정의되었다. 은퇴는 인생 후반부인 노년기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는 인간 생애발달상의 중요한 사건이 된다.

선행 연구에서 은퇴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정의되었다. (박창제, 2008b)

은퇴준비는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개인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는 개인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준비성향과 준비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은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은퇴준비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다(김연진, 2012).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은퇴준비는 노후준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은퇴 자금과 관련한 경제적인 준비의 측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준비가 은퇴준비 과정의 주요 측면이나 신체적인 측면(건강 등), 정서적인 측면(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여가활동과 관련된 사회활동면 등 다른 측면의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영완(2010)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준비를 위한 경제생활 차원의 준비, 건강생활 차원의 준비, 여가생활 차원의 준비, 가족생활 차원의 준비, 주거생활 차원의 준비로 분류하였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지닌 자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김연진, 2012), 또한 최근에 생명보험회사에서 은퇴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화하는 연구결과들에서도 재정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심리, 사회적 관여 등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퇴준비 개념을 건강 관리를 포함한 신체적인 준비, 가족 및 친

1) 2013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작성 자료 발췌

구 등과의 관계 유지를 포함한 관계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시간활용 준비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은퇴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2)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은퇴기대

노년에서 다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신이 지내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다. 먼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한계나 감소를 인지해야 하며 변화된 자신의 사회적 활동범위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의의 갖도록 해야 한다(장미란, 1981).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노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여 ‘conscious(의식적 노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황금기’라는 수사에 묻혀버린 노화의 실체를 알고 받아들이기를 주장한다. 미국의 베이비붐세대는 생의 2/3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세대로 일컬어지며 나머지 1/3의 생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년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별고 쓰기 바빴던’ 생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정경희 외, 2006; 최인영, 2007).

노화는 인간발달 단계에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한국사회의 발전과 함께 평균수명의 증가, 물질적인 부유함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가는 추세와 더불어 단순한 수명의 증가가 아닌 성공적으로 노화해 가는 삶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도와 함께 Baltes, Baltes, Freud, Lang(1999)의 성공적인 노화 척도 개발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져 생애발달에 따른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척도가 개발되어졌고, 안정신·강인·김윤정(2009)에 의해 개발되어진 한국형 성공적인 노화 척도 개발은 생애발달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에 관한 노후생애 교육과 실천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연구 대상을 중년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하였다.

노년 세대와 이전의 중년 세대까지 포함하여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안정신 외(2009)의 척도에서 성공적인 노화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 효능감의 3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일상의 안녕’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성공적인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아를 인정하는 ‘심리사회적 안녕’의 요인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활동이론과 노년기 이전의 역할 철회와 관련한 분리이론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성공적인 노화는 학문마다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고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다르므로 확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문화마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Torres, 2002; Glass, 2003; 최인영, 2007; 안정신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안정신 외(2009)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일상생활 용이성’, ‘원활한 사회관계성’의 3가지 요인으로 개념 정의를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길태영, 2012)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의 안녕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 심리사회적 안녕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효능감 요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은퇴기대의 개념과 선행연구

선진국에서의 은퇴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맞게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치게 되는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서 은퇴준비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은퇴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에 비해 두텁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은퇴 기대는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은퇴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단일 차원으로 보던 관점에서 은퇴기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Antonovsky 등, 1990; 배문조, 2005) Hornstein & Wapner(1985)의 연구에서 개인들이 은퇴를 경험하는 방식의 복잡한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직업분야별 24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한 달부터 퇴직 후 여덟 달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의 4가지 은퇴 양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은퇴기대도구(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Hanson과 Wapner(1994), Gee와 Baillie이 다시 재확인하였다. 이 척도에 의해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 계속(continuity) 4요인이 추출되었다.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은 은퇴를 직업의 상실로 여기며 직업이란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의미가 없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의 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로 은퇴를 선택이 아닌 외부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보았다.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은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다려온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은 은퇴를 인생의 휴식기로 여기며 조용한 삶으로 천천히 들어가 쉬면서 생애를 정리하는시간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계속(continuity)은 은퇴를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계속의 시기로 본다.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삶의 기본 패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Gee와 Baillie(1999)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은퇴 후 삶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소외 및 상실’, 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기회’의 2요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 다르게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러한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많은 연구(김연옥 1992; 서진교, 1997; 최성재, 1989; 홍승후, 2001; Holmes & Rahe, 1987)에 의하여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현재 및 은퇴 후 예견되는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종, 퇴직연령 등이 있다(홍혜전, 2009).

은퇴기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김희은(2012)은 청장년층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은퇴기대, 은퇴준비에 대한 결과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은퇴기대를 매개로 한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된 것을 근거로 효과적인 은퇴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연구하였고, 홍혜전(2009)은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재사회화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성공여부는 은퇴기대 즉 ‘은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배문조(2005)는 직장인의 은퇴기대를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심리변인, 직업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과거에는 은퇴 후 삶의 기간이 매우 짧고 질병과 죽음으로 점철된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되었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은퇴 후 삶은 여생의 기간이 매우 길며 가장과 부모의 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좀 더 여유롭게 주어지는 생의 시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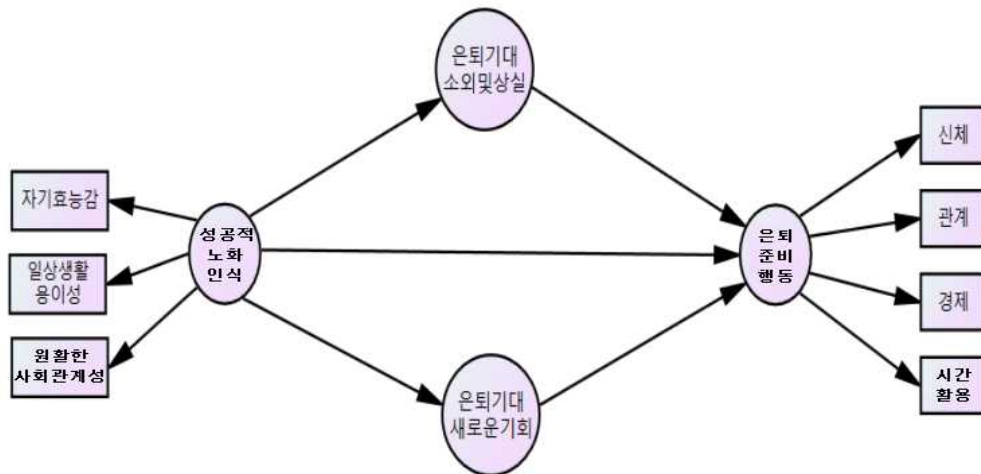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가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변수들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2>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성공적노화인식은 은퇴기대를 매개로 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은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림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모델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문제 1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는 이들의 은퇴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성공적 노화인식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기대 (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를 통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2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업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 출생자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1974년 출생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은퇴의 과정을 연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대상을 현재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남녀로 제한하여 전업주부 및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월 1일에서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433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

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4>과 같다.

< 표4 >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433)

변 인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	227	52.4
	여	206	47.6
세대 및 연령	1차 베이비붐세대 (1955년-1963년 출생)	210	48.5
	2차 베이비붐세대 (1968년-1974년 출생)	223	51.5
거주지역	서울	233	53.8
	경기	200	46.2
결혼상태	기혼	433	100
자녀여부	유	413	95.4
	무	20	4.6
전체 자녀수	1	105	24.2
	2	274	63.3
	3명 이상	34	7.9
직업	기능직	43	9.9
	자영업	71	16.4
	사무/관리/기술직	256	59.1
	경영 및 전문직	63	14.6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76	17.6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중퇴	67	15.5
	대학교 졸업	237	54.7
	대학원 이상	53	12.2
월평균 소득 ²⁾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4	14.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4	21.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1	23.3
	500만원 이상	174	40.2
주택보유 여부	보유	333	76.9
	미보유	100	23.1
보유자산	1억미만	42	9.7
	1억이상~5억미만	225	52.0
	5억이상~10억미만	128	29.6
	10억이상	38	8.8

2)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합산 금액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예금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 사업 소득, 부모와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문항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베이비부머 1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분량과 질문의 애매성 등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은퇴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다면적으로 구성하였다. Atchley(1991)는 은퇴준비를 은퇴 후 만족스러운 적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를 4품., 즉 빈곤, 질병, 고독, 외로움 및 역할 상실로 정의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하여 제거함으로써 적응을 하기 위한 준비 행동으로 신체적 준비, 관계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활용 준비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김영완(2010), 전효수(2012) 연구에서 사용한 은퇴준비행동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고(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의 값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표5>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체적 준비는 노후의 건강을 위한 준비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준비는 현재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의 정서적, 도구적 교류의 질로 측정하였다. 이는 현재의 관계특성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연속성 이론에 근거하는데, 이는 노화를 겪는 개인은 잃어버린 역할을 비슷한 유형의 역할로 대체하게 되며, 내재적인 심리적 연속성뿐 아니라, 외면의 사회적 행동과 상황의 연속성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전형적인 방법들을 고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생을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살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 사람의 이전까지의 개인적인 삶과 융합되기 때문에, 어떤 격변이나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노화는 전 생애에 걸쳐 생기는 하나의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의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현재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때 노후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준비 행동도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경제적 준비는 노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시간의 의미 준비는 은퇴후의 여유로워진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한 준비행동들로 구성된다.

〈표5〉 은퇴준비행동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의 알파
신체적 준비	17.노후의 건강을 위해 체중관리를 하고 있다.	.798	.852
	16.노후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781	
	11.노후의 건강을 위해 음식 조절을 하고 있다.	.703	
	15.노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678	
	18.노후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	.660	
	8.노후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644	
	14.노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542	
	12.노후의 건강을 위해 음주를 피하고 있다.	.522	
	13.노후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피하고 있다.	.519	
관계적 준비	26.배우자와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있다.	.795	.870
	31.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790	
	27.배우자와 힘든 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788	
	25.배우자를 위로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674	
	32.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669	
	29.자녀와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있다.	.649	
	28.자녀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639	
	30.자녀와 힘든 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624	
경제적 준비	5.노후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	.738	.830
	2.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733	
	1.노후생활을 위해 은행적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717	
	6.노후생활과 관련 저축,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687	
	4.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685	
	10.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	.624	
시간활용 준비	20.노후의 보람된 생활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18	.813
	21.노후의 보람된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03	
	22.노후의 보람된 생활을 위해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16	
	23.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486	

나) 은퇴기대

은퇴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은퇴에 대해 형성해 온 생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하여 기대하는 주관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은퇴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Hornstein & Wapner(1985)의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Gee & Baillie이 재구성한 척도(1999) (배문조(2006), 홍혜전(2009))를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강요된 좌절,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에 대해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고(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의 값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2개의 요인은 각각 은퇴를 소외와 상실로 기대하는가(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로 기대하는가(새로운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

〈표6〉 은퇴기대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 의 알파
소외 및 상실	21.은퇴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760	.903
	20.은퇴를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748	
	18.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들로 부터 소외될 것이다.	.703	
	17.은퇴를 하고 나면 빨리 늙게 될 것이다.	.701	
	22.은퇴를 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이 상실감으로 느껴질 것이다.	.643	
	19.은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638	
새로운 기회	10.은퇴는 휴식보다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39	.867
	7.은퇴는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과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721	
	15.은퇴는 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691	
	9.은퇴는 현재의 직업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63	
	6.은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653	
	13.은퇴 이후는 자기개발의 시간이다.	.626	

다) 성공적 노화인식

성공적인 노화는 학문마다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고 있고 개념 정의와 측정 방식이 다르나 다차원적인 영역들로 구성되어진다. (Torres,2002; Glass,2003;최인영,2007) 안정신, 강인, 김운정이 개발한 척도(2009)에서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차원의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의 3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일상생활 용이성, 원활한 사회관계성으로 도출되었는데 ‘일상생활 용이성’ 요인은 안정신 외(2009)의 연구 결과의 ‘일상의 안녕’ 요인과 ‘원활한 사회관계성’ 요인은 ‘심리사회적 안녕’ 요인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성공적 노화인식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 h의 알파
자기효능감	23.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807	.840
	22.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791	
	25.일상생활의 문제나 도전을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확신을 갖는것	.770	

	24.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753	
	16.변화에 적응하는 것	.537	
일상생활 용이성	3.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803	.807
	4.대소변에 문제가 없는 것	.749	
	6.마음이 평안한 것	.699	
	2.경제적인 준비(연금, 지원금, 퇴직금, 보험, 이자수입 등)가 잘 되어있는 것	.666	
	5.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하는 것	.591	
	1.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내는 것	.567	
원활한 사회관계성	9.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739	.825
	12.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703	
	11.친척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698	
	14.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	.683	
	13.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679	
	10.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것	.536	

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 자녀 유무 및 수,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주택보유 유무, 자산정도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검사도구 타당도 검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에 이용될 변수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관한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그리고 법칙타당도 등을 검토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수렴타당도라고도 하며,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검증은 판별타당도 검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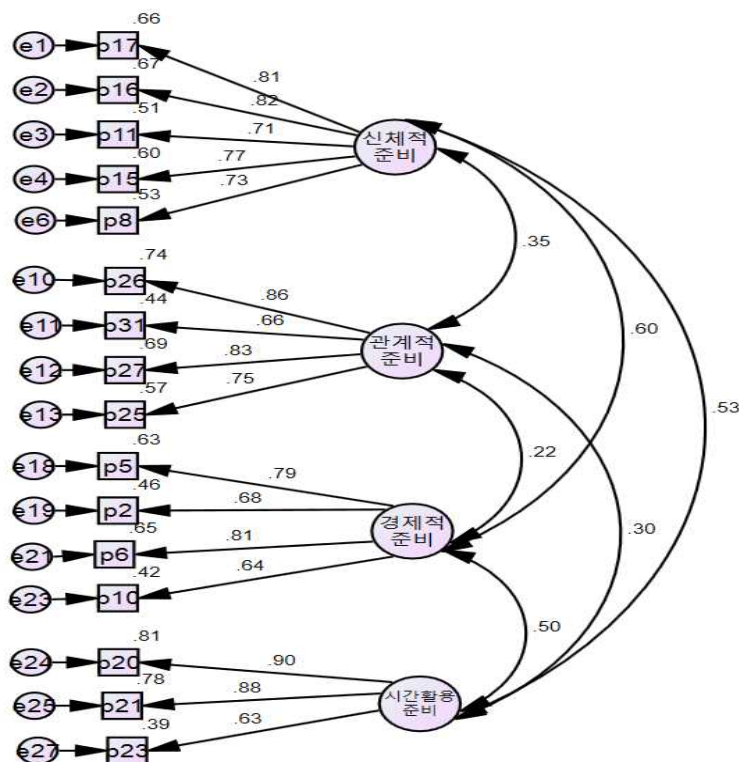
(1) 은퇴준비행동 검사도구 타당도

은퇴준비행동은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4요인 27문항에 대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그림3>에 제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1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은퇴준비 문항의 모든 경로계수와 모델 적합도는 $\chi^2=306.326$, $p=.000$, GFI=.920, TLI=.928, CFI=.941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더불어 <표8>에 제시되었듯이, 요인부하량이 모두 .5 이상이고 C.R값과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는 .656, .704, .543, .675 그리고 개념 신뢰도는 .905, .904, .825, .859로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9>는 은퇴준비 4요인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나타낸다. <표9>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각선에 있는 각 잠재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값은 대각선 하단에 있는 각 잠재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r^2)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림3> 은퇴준비 4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8〉 은퇴준비의 집중타당도 결과

경로		비표준 화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신체적 준비 ->	p17	.978	.056	17.37	.000	.814	.656	.905
	p16	.955	.054	17.52	.000	.820		
	p11	.863	.058	14.99	.000	.714		
	p15	1.000	-	-	-	.771		
	p8	.864	.057	15.26	.000	.725		
관계적 준비 ->	p26	.960	.050	19.33	.000	.860	.704	.904
	p31	.668	.047	14.34	.000	.662		
	p27	1.000	-	-	-	.831		
	p25	.852	.051	16.84	.000	.754		
경제적 준비 ->	p5	1.178	.091	12.97	.000	.793	.543	.825
	p2	1.099	.094	11.65	.000	.680		
	p6	1.194	.091	13.11	.000	.807		
	p10	1.000	-	-	-	.645		
시간활용 ->	p20	1.486	.105	13.14	.000	.897	.675	.859
	p21	1.478	.105	14.11	.000	.883		
	p23	1.000	-	-	-	.628		

〈표9〉 은퇴준비의 판별타당도 결과

	신체적 준비	관계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시간활용 준비
신체적 준비	.656*			
관계적 준비	$r^2 = (.35)^2 = .123$	.704*		
경제적 준비	$r^2 = (.60)^2 = .360$	$r^2 = (.22)^2 = .048$	.543*	
시간활용 준비	$r^2 = (.53)^2 = .281$	$r^2 = (.30)^2 = .090$	$r^2 = (.50)^2 = .250$	.675*
수용기준	AVE > r^2			

* = 분산추출지수(AVE) 값, r^2 = 요인간 상관의 제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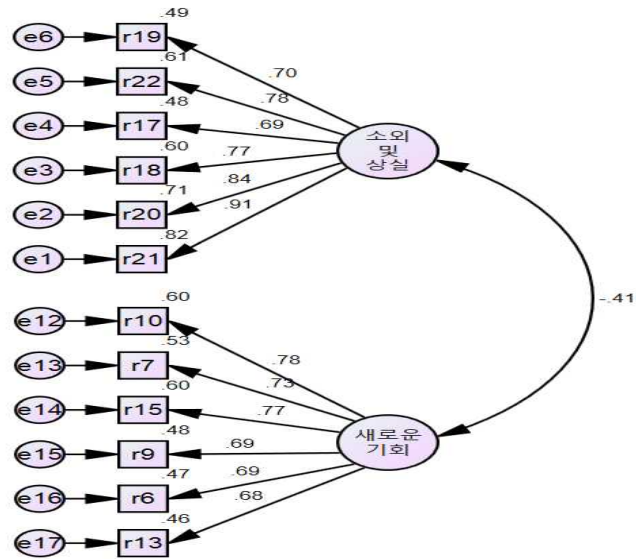
(2) 은퇴기대 검사도구 타당도

은퇴기대는 본 연구에서 내생변수이면서 동시에 외생변수이다. 또한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은퇴기대가 매개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파악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22문항에 대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고,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요인회전 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를 사용했다. 그 결과 2요인, 12문항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명은 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로 요인부하량과 신뢰도값이 유의하게 나왔다.

은퇴기대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림4〉 은퇴기대 2요인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은퇴기대 문항의 적합도는 모델적합도와 모든 경로계수($x^2=203.885$, $p=.000$, $GFI=.926$, $TLI=.933$, $CFI=.946$)가 만족된다고 본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모두 .5 이상이고 C.R값과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 신뢰도가 모두 수용 기준치 .5과 .7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10〉 은퇴기대의 집중타당도 결과

경로	비표준 화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소외 및 상실 →	r19	.778	.044	17.48	.000	.701	.637 .913
	r22	.890	.043	20.80	.000	.779	
	r17	.698	.041	17.03	.000	.689	
	r18	.789	.039	20.47	.000	.772	
	r20	.922	.038	24.10	.000	.844	
	r21	1.000	-	-	-	.905	
새로운 기회 →	r10	1.271	.091	14.01	.000	.775	.636 .913
	r7	1.284	.097	13.26	.000	.727	
	r15	1.249	.089	13.98	.000	.774	
	r9	1.108	.087	12.73	.000	.693	
	r6	1.076	.085	12.62	.000	.687	
	r13	1.000	-	-	-	.681	

은퇴기대 2요인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표11〉에 제시되었다. 〈표11〉를 보면 대각선은 각 잠재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값이고, 이 AVE값이 대각선 하단에 있는 각 잠재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r^2)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11〉 은퇴기대의 판별타당도 결과

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
소외 및 상실	.637*	
새로운 기회	$r^2=(-.41)^2= .168$	.636*
수용기준	AVE > r^2	
* = 분산추출지수(AVE) 값, r^2 = 요인간 상관의 제곱		

(3) 성공적 노화인식 검사도구 타당도

성공적 노화인식은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3요인 17문항에 대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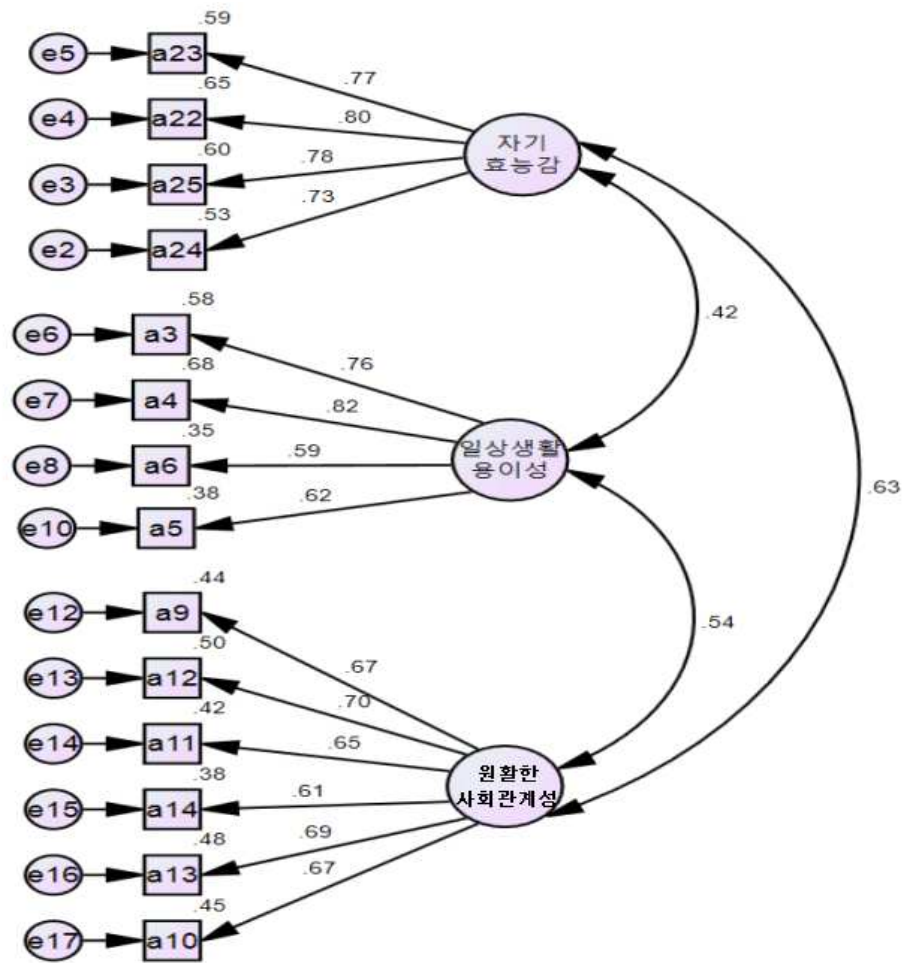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3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성공적 노화인식 문항의 적합도 χ^2 가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했지만 적합도와 모든 경로계수($\chi^2=316.694$, $p=.000$, GFI=.909, TLI=.903, CFI=.902)가 만족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모두 .5 이상이고 C.R값과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구성개념 타당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집중타당도를 확인해주는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 신뢰도가 모두 수용 기준치 .5과 .7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성공적 노화인식 3요인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표13>에 제시되었다. <표13>를 보면 대각선에 .756*, .692*, .638*은 각 잠재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값이다. 이 AVE값이 대각선 하단에 있는 각 잠재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r^2)보다 크게 나올 때 판별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다(Fornell et al, 1981³⁾). 특히 자기 효능감과 사회 교류성처럼 상관계수(.63)가 가장 높은 변수 간 상관을 선택하여 대표적으로 검증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관이 높을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우종필, 2013⁴⁾). 성공적 노화인식의 경우는 3개의 잠재변인이 모두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림5> 성공적 노화인식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 Fornell et al, 1981 (1981). Evaluating Structural Evaluations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pp.39-50.

4) 우종필 (2013).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표12〉 성공적 노화인식의 집중타당도 결과

경로		비표준 화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자기효능감 ->	a23	1.028	.070	14.69	.000	.768	.756	.925
	a22	1.126	.074	15.29	.000	.804		
	a25	1.110	.075	14.85	.000	.777		
	a24	1.000	-	-	-	.726		
일상생활 용이성 ->	a3	1.310	.110	11.88	.000	.765	.692	.898
	a4	1.465	.120	12.21	.000	.822		
	a6	.961	.097	9.92	.000	.589		
	a5	1.000	-	-	-	.619		
원활한 사회관계성 ->	a10	1.000	-	-	-	.669	.638	.913
	a13	1.039	.086	12.14	.000	.691		
	a14	1.009	.092	11.00	.000	.615		
	a11	1.033	.090	11.50	.000	.647		
	a12	1.015	.082	12.33	.000	.705		
	a9	1.003	.085	11.78	.000	.666		

〈표13〉 성공적 노화인식의 판별타당도 결과

	자기 효능감	일상생활 용이성	원활한 사회관계성
자기 효능감	.756*		
일상생활 용이성	$r^2 = (.42)^2 = .176$	.692*	
원활한 사회관계성	$r^2 = (.63)^2 = .397$	$r^2 = (.54)^2 = .292$	.638*
수용기준	AVE > r^2		
* = 분산추출지수(AVE) 값, r^2 = 요인 간 상관의 제곱			

(4)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다중집단구조방정식을 위한 검사도구 타당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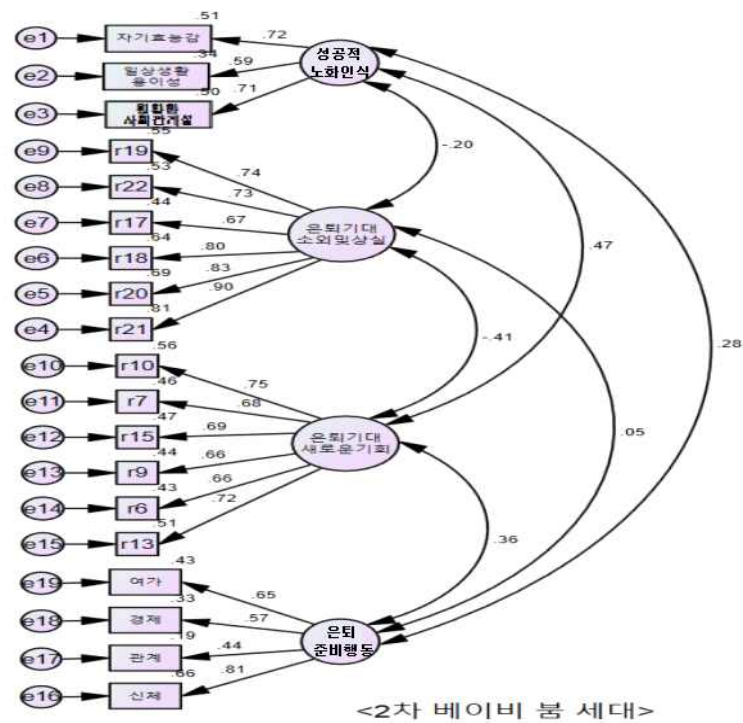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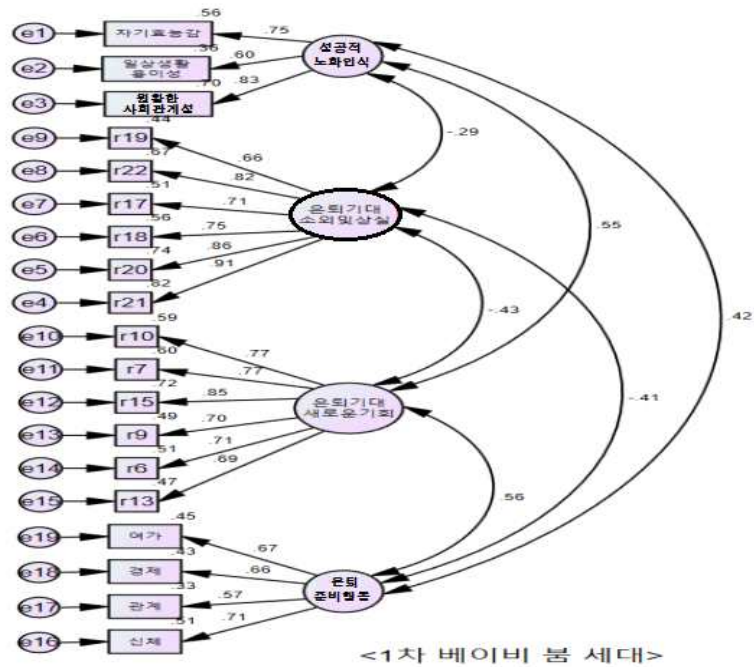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두 집단으로 구별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교차타당도(cross validation)로 검정하였다 <그림6>. 교차타당도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결과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다른 표본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우종필, 2013⁵⁾).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측정동일성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14> 1, 2차 베이비붐 세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χ^2	df	CFI	RMSEA	TLI	$\Delta \chi^2/df$	$\Delta \chi^2$ Sig.
[비제약 모형] Unconstrained	573.9 3	292	.924	.047	.911		
[모형 1]: 측정 가중치 Measurement Weight (λ 제약)	602.3 6	307	.920	.047	.911	28.43 /15	유의하지 않음
[모형 2]: 구조 공분산 Structural Covariances (λ, ϕ 제약)	630.4 4	317	.916	.048	.909	56.51 /10	유의함
[모형 3]: 측정 잔차 Measurement Residuals (λ, ϕ, θ 제약)	666.7 0	336	.911	.048	.909	92.77 /19	유의함
p=.01일 때 $df=15, \chi^2=30.58, df=10, \chi^2=23.21, df=19, \chi^2=36.19$							

<그림6>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5) 우종필 (2013).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표14>을 보면, 요인부하량이 제한된 [모형 1](λ 제약)과 [비제약 모형]의 차이는 $df=15$ 일 때, Δx^2 는 28.43이 된다. 이 두 모델 간 x^2 차이는 x^2 분포표를 확인한 결과 $p=.01$, $df=15$ 일 때 30.58로서 28.43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과 구조공분산이 제한된 [모형 2](λ , ϕ 제약)와 [비제약 모형]의 Δx^2 는 56.51로 $x^2(p=.01, df=10)$ 의 값 23.21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 구조공분산, 측정오차가 제한된 [모형 3](λ , ϕ , θ 제약)과 [비제약 모형]의 Δx^2 는 92.77로 $x^2(p=.01, df=19)$ 의 값 36.19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부하량은 같지만 구조적 분산과 측정오차로 인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간의 구조방정식에 유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구조적 분산과 측정오차로 인한 차이는 추후 구조방정식모델로 전환했을 때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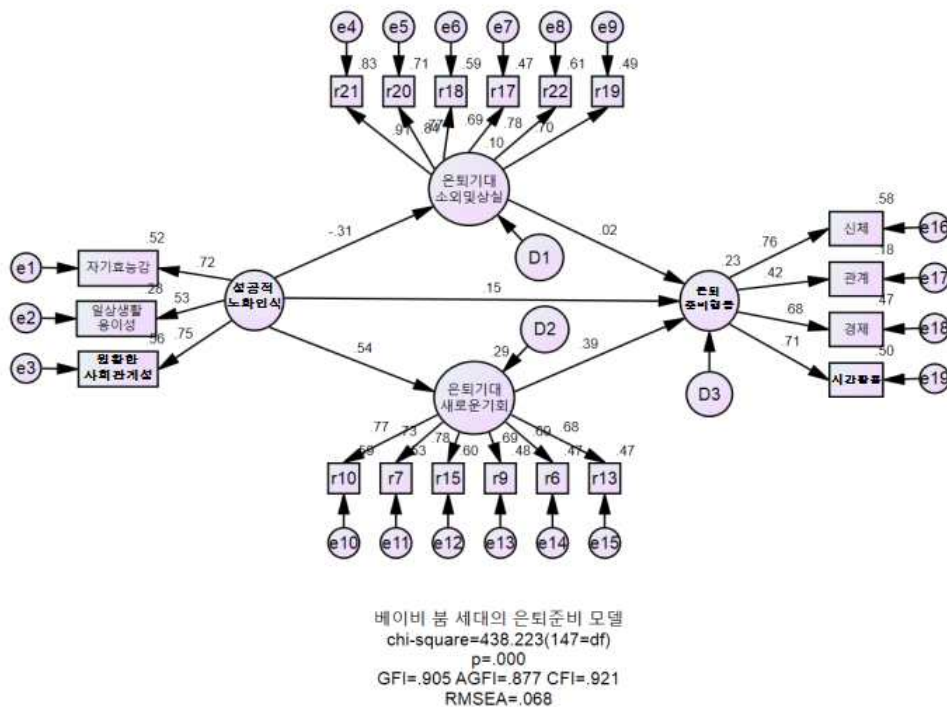
따라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성공적 노화기대가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새로운기회)와 부정적 태도(소외 및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은퇴에 대한 태도는 다시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 적합도와 경로계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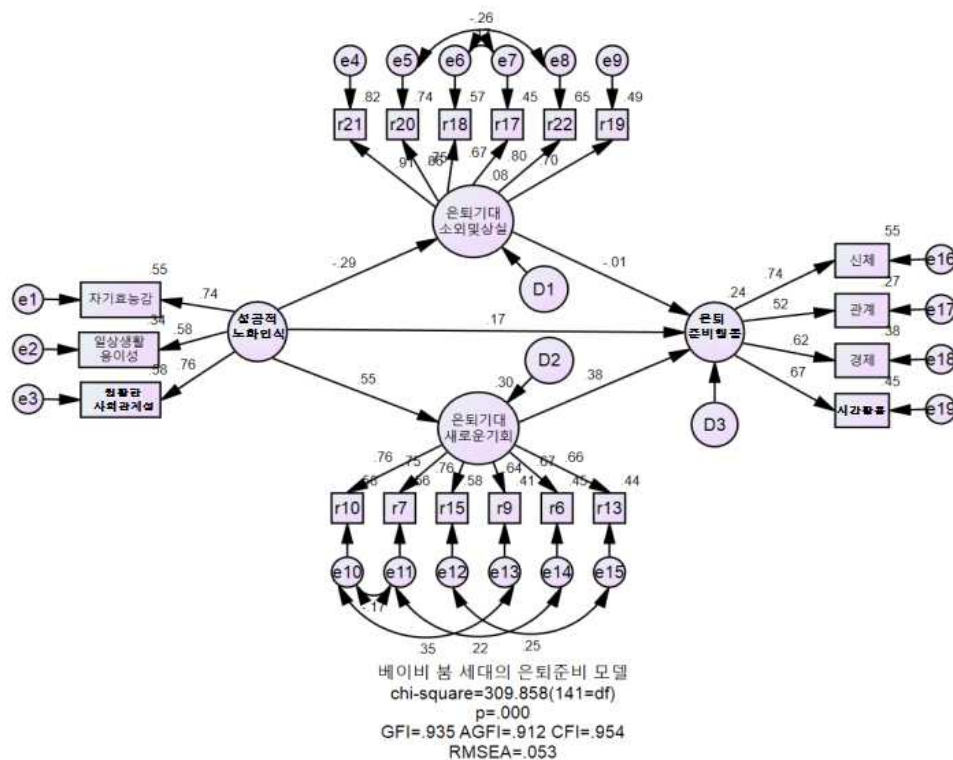
〈그림7〉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연구모델의 채택과 기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구문제 검증만큼 중요한 부분이다(우중필, 2013).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는 <그림7>과 같다. 적합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델 적합도가 다소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이용하여 수정 모형을 개발했다.

먼저, $e13 \leftarrow e10$, $e14 \leftarrow e11$, $e15 \leftarrow e12$, $e10 \leftarrow e11$, $e5 \leftarrow e8$, $e6 \leftarrow e7$ 사이의 수정지수는 각각 48.340, 24.397, 23.301, 6.867, 10.123, 9.250으로 가장 큰 지수로 나타났다. $e10$, $e11$, $e12$, $e13$, $e14$, $e15$ 는 모두 은퇴기대 중 새로운 기대에 관한 오차 변인이고, $e5$, $e6$, $e7$, $e8$ 은 모두 은퇴기대 중 소외 및 상실에 관한 오차 변인이므로 서로 자기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공분산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다. <그림8>은 이와 같이 수정 한 후 구조방정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8>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수정 후)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아래의 <표15>에 제시하였고,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χ^2 는 절대적합지수로서, 일반적으로 p 값이 0.05보다 클 때 연구모형이 5%의 유의수준에서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χ^2 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통계적인 검정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으므로 요즘 들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χ^2 통계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χ^2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우중필, 2013).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x^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 RMSEA는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고, .08 이하면 양호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RMSEA가 .053으로 .05에 가깝고, 수정모형에 대한 다른 적합도 GFI, AGFI, NFI, CFI는 수용기준치 .90보다 높아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표15〉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결과

	x^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초기모형	438.223	147	.000	.905	.877	.886	.921	.068
수정모형	309.858	141	.000	.935	.912	.919	.954	.053
수용기준			>0.5	>.90	>.90	>.90	>.90	<.05
결과			-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경로계수($B=-.290$, $p<.001$),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경로계수($B=.548$, $p<.001$),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준비 경로계수($B=.170$, $p<.05$), 은퇴기대(새로운 기회)와 은퇴준비($B=.379$,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 노화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을 소외 및 상실로 기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성공적 노화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의 삶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 준비행동 간에는 정적인 관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공적 노화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기대를 소외 및 상실로 인식하는 정도와 은퇴준비행동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하는 정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 긍정적인 은퇴기대가 은퇴준비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6〉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S.E	t(C.R)	P
성공적 노화 ->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290	.109	-4.929	.000***
성공적 노화 ->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548	.090	7.880	.000***
성공적 노화 -> 은퇴준비	.170	.103	2.214	.034*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 은퇴준비	-.009	.039	-.166	.868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 은퇴준비	.379	.077	4.880	.000***

(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검정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크기와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17>에 제시되었다.

<표17> 가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공적 노화인식 →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290** (p=.002)	.000	-.290** (p=.002)
성공적 노화인식 →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548** (p=.003)	.000	.548** (p=.003)
성공적 노화인식 → 은퇴준비	.170 (p=.092)	.210** (p=.002)	.380** (p=.003)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 은퇴준비행동	-.009 (p=.903)	.000	-.009 (p=.903)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 은퇴준비행동	.379** (p=.004)	.000	.379** (p=.004)
***P<.001, **P<.01, *P<.05			

<표17>을 보면,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 값은 .380(P<.05)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합해진 값이다. 직접효과는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값 .170이다. 간접효과는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를 경유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값 .210(P<.05)이다. 또한 Bootstrap 방법을 통하여 이 간접효과의 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은퇴기대의 매개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매개효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 은퇴기대의 매개역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모형에는 은퇴기대 변인이 소외 및 상실과 새로운 기회로 나뉘었다. 이 중 어떤 은퇴기대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외생변수인 성공적 노화인식과 내생변수인 은퇴준비행동 사이에 매개변수인 은퇴기대(새로운 기회)가 개입될 때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Hair et al, 2006⁶⁾). 먼저 세 변수 간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해야한다. 또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된 상태에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유의한 상태로 전혀 변함이 없

6)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다면 매개효과는 없는 것이다.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유의하지만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하면 부분매개가 되고,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 매개가 된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은퇴 기대 중 새로운 기회 요인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외생변수인 성공적 노화인식과 내생변수인 은퇴준비행동 사이에 매개변수인 은퇴 기대(새로운 기회)가 개입 되었을 때 pearson 상관계수 .259에서 표준화 계수 .170으로 약해졌지만,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C.R=2.214$, $p<.05$)하기 때문에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은퇴기대 요인 중 새로운 기회 요인에 대해서만 부분매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 간의 차이 검증

(1)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개별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다중 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두 집단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힐 수 있다.

<그림9>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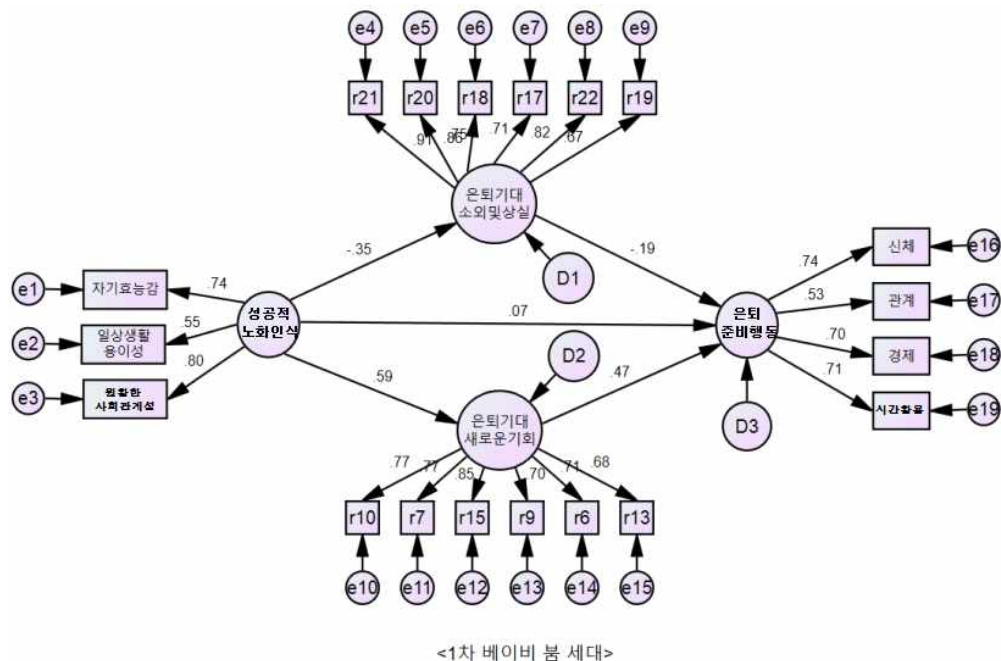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개별 집단별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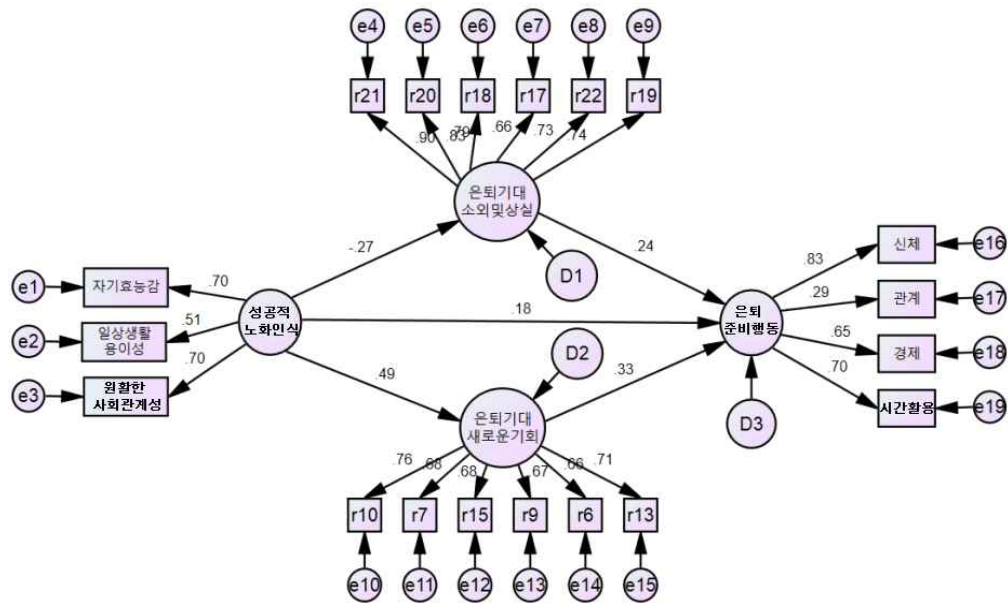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간의 경로계수($B=-.349$, $p<.001$)와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간의 경로계수($B=.587$, $p<.001$),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와 은퇴준비행동 간의 경로계수($B=-.185$, $p<.05$), 은퇴기대(새로운 기회)와 은퇴준비행동 간의 경로계수($B=.471$,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은퇴준비행동간의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역시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간의 경로계수($B=-.269$, $p<.01$),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간의 경로계수($B=.487$, $p<.001$),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와 은퇴준비 간의 경로계수($B=.243$, $p<.01$), 은퇴기대(새로운 기회)와 은퇴준비 간의 경로계수($B=.333$,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은퇴준비행동 간에는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

봄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은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동일했으며, 이때, 수치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았으며,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와 은퇴준비 간 경로계수 수치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의 삶을 소외 및 상실로 기대할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정도가 낮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삶을 소외 및 상실로 기대할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후 삶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9>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2차 베이비 붐 세대>

<표18>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경로계수 비교결과

경로	경로계수	
	1차 베이비 붐 세대	2차 베이비 붐 세대
성공적 노화 ->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349***	-.269**
성공적 노화 ->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587***	.487***
성공적 노화 -> 은퇴준비	.073	.177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 은퇴준비	-.185*	.243**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 은퇴준비	.471***	.333***

(2)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 구조방정식 경로계수 차이검정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 별로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계수의 차이검정을 실시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별로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으려면, 경로의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가 1.965를 넘어야 한다. <표19>의 결과를 보면,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과 은퇴준비 간의 경로의 차이가 3.862로서 임계치 1.9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 별 경로계수에 대한 Δx^2 비교검정 결과를 보면, 역시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Δx^2 가 14.59로서 임계치 3.84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 중 소외 및 상실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경로계수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별 경로계수 Δx^2 비교결과

경로 제약 (Path Constrained)		x^2	df	Δx^2	Δx^2 Sig.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비제약 모델 (Unconstrained)		611.76	294			
제약모델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611.77	295	.01	-	.120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611.80	295	.04	-	-.225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준비행동	612.74	295	.98	-	.961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은퇴준비행동	626.35	295	14.59	유의함	3.862
	은퇴기대(새로운 기회) ->은퇴준비행동	611.85	295	.09	-	-.306
임계치(C.R.) = 1.965, p=.05일 때 df=1, 임계치(x^2) = 3.84						

결론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외 및 상실에 대한 은퇴기대가 은퇴준비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행동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은퇴기대를 매개로 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행동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 새로운 기회), 은퇴준비 간의 구조적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경로계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낮고,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즉 소외와 상실은 은퇴준비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은퇴준비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은퇴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준

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값이 가장 큰 것은 성공적 노화인식이 은퇴기대(새로운 기회)에 미치는 영향력 .548($p<.01$)이며, 다음으로 은퇴기대(새로운 기회)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379($p<.01$)이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검증결과 은퇴기대 요인 중 새로운 기회 요인에 대해서만 부분매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은퇴기대를 매개로 한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1, 2차 베이비붐 세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은퇴기대와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행동을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기대로 여길수록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은퇴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세대 집단은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동일했으며, 특히 은퇴기대(소외 및 상실)와 은퇴준비 간 경로계수 수치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집단별로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는 소외 및 상실에 대한 은퇴기대와 은퇴준비 간의 경로계수로 나타났다. 이때,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소외 및 상실에 대한 은퇴기대가 은퇴준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2차 베이비붐세대는 양(+)의 영향을 미치며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등장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성장하여 격동적인 현대사를 체험한 세대이다. 또한 대가족속에서 성장하여 핵가족을 영위하였으며 전통유지와 변화라는 양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갖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 시장의 불안전성, 사회 복지 비용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과 함께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은퇴준비의 미비로 연결된다. 하지만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력이 뛰어나며, 경제력과 직업적 전문성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자기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 및 제3의 인생으로 여겨 적극적이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세대의 출생년도는 1955년에서 1963년생이며 본 연구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금융소비자로 등장한 1968-1974년생 코호트 집단인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과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센서국(U.S Census Bureau)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출산 붐이 시작된 1955년에서 산아제한 정책 도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김용하임성은,2011)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출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합계출산율 3.0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1년 전후 10년 동안의 기간도 베이비붐세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자수를 분석하여 보면 1955년에서 1974년까지 20년간 합계출산율이 3.0이상을 유지하여 (김용하임성은,2011) 이 기간 모두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시기를 특정기간 출산율이 급등하고 출생아수가 급증하는 현상이라고 하면 1960년과 1971년 전후의 출산율 급증에 따른 출생아수 증가 시기 모두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1955년~1964년 전기와 1965년~1974년 후기로 나누어 폭넓게 파악하여야 한다(김태헌, 2010; 김순옥, 2010)는 논의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1960년대 중반에는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국민은행 등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1968~1974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와 특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고,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남성의 역할 분담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 활동에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뿐 아니라 이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설정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 및 인식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치관은 그 사람의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준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은 가치에 해당된다.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가치-태도-행동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서유영,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가치로 은퇴에 대한 기대를 태도로 은퇴준비를 행동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은퇴준비행동에서 은퇴기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가치-태도-행동의 체계의 과정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고, 은퇴 후 삶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에 따라 즉, 은퇴 후 삶을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로 보는지 또는 은퇴 후의 삶을 부정적인 소외 및 상실로 보는지에 따라 은퇴준비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은퇴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공적 노화인식, 은퇴기대, 은퇴준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후 경로계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SPSS프로그램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17문항이 3요인으로 추출되었고, AMOS프로그램을 통해 14문항 3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은퇴기대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20문항 4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2문항 2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은퇴기대는 내생변수이면서 동시에 외생변수로 노화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 또는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은퇴준비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27문항 4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6문항 4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수정지수와 SMC를 이용하여 수정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계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공적 노화인식은 소외 및 상실의 은퇴기대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새로운 기회로의 은퇴기대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은퇴 준비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은퇴기대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은퇴기대 중 새로운 기회 요인만 간접효과가 나타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개별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기대를 소외 및 상실로 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기대를 새로운 기회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은퇴 후 삶을 인생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은퇴준비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의 관계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기대로 여길수록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와 소외와 상실의 은퇴기대, 성공적인 노화와 새로운 기회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모두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정도가 나타났는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반대로 은퇴기대를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대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은퇴준비를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1,2차 베이비붐 세대 모두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는 은퇴준비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삶을 소외 및 상실로 여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준비도가 낮았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 여러 어려움의 이유로 자신의 은퇴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연금제도와 각종 노후 지원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은퇴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연구하여야겠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삶을 소외와 상실로 여길수록 은퇴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은퇴 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고화정(2013). 한국은퇴자 유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태영(2012). 베이비붐 세대가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10).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연금재정. 연금포럼, 37, 20-27.
- 김연진(2012). 한국형 은퇴준비 척도 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완(2010).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 연구, 21(2), 36-59.
-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김태현(2012).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보건복지포럼, 37, 4-11.
- 김태현(1997). 노년학. 교문사.
- 박재홍(1995).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 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38집.
- 박창제(2008b).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 배문조(2005). 개인적 심리적 직업변인이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유영(2013). 지역주민의 문화가치가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이벤트 태도 및 주민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양민(2010). 밥·돈·자유 ;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 안정신·강인·김윤정(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 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우종필 (2013). 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전효수(2012).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외(2010).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영(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은정·김우성(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 홍혜전(2009). 전문무용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자료(2011). 연령별 인구구성비.
- 통계청자료(2012). 경제활동 인구조사.
- 통계청자료(2013).연령별 인구구성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2012) 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 자료.
- KB금융지주연구소(2012).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현황과 시사점.
- Atchly, R. C. (1991). *Social forces and aging (6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R.(1999). *The measur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by self-report*. Berlin,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 Fishbein, M. A. &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Addison-Wesley.
- Fornell et al, 1981 (1981). Evaluating Structural Evaluations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pp.39-50.
- Gee S. & Baillie J.(1999). *Happ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5(2), 109-128.
- Glass, T. A.(2003). *Assessing the success of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9, 382-383.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nson, K., & Wapner, S. (1994). *Transition to retirement: Gender differences*. The

-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3), 189-208.
- Hornstein, G. A., & Wapner, S. (1985). *Mode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1(4). 291-315.
- Meglino, B. M., & Ravlin, E. C.(1998) Individual values in organization: Concepts, controversies,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4, 351-389.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Press, New York.
- Torres, S.(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33,417-432.
- Williams, R. M.(1979). Change and stability in values and value systems: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M. Rokeach(Ed.), *Understanding human values; Individual and societal*(pp.15-46). New York: Free Press.